

전남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속도...설계용역 착수

고흥 도덕면 가야리 간척지 일원 2022년까지 1100억원 투자

청년보육시설 · 임대형 스마트팜 · 주민참여형단지 조성 등

전남도가 고흥 도덕면 가야리 간척지 일원(33.3ha)에 조성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도에 따르면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100억원을 들

여 청년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실증단지 등을 건립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 조성과 청년보육시설, 임대형스마트팜 지

원센터 등 핵심시설 세부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세부 실시설계용역은 기반조성 분야와 핵심시설 분야로 구분해 추진한다. 기반조성 분야는 혁신밸리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빗물저수조

등의 시설 기초공사다.

핵심시설 분야는 청년보육센터, 실습농장, 임대형스마트팜 단지, 실증단지, 혁신밸리지원센터 등 구조물 설계다.

세부설계가 끝나면 인허가 협의와 시행계획 수립·공고를 거쳐 2020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고흥 대상 부지를 스마트농업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지역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협의한 후 부지 소유권 이전을 9월 완료했다.

또한 혁신밸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1차 협의를 완료하고,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흥군과 연계해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주민참여형단지 조성 등 농업인이 안

정적으로 정착할 기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홍석봉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앞으로 기반 조성, 청년보육시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주민참여단지 조성 등은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아이디어와 벤치마킹을 통해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남의 랜드마크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군, 5·18 당시 설팅 수류탄 사용”...입증할 증거 나왔다

80년 5월27일 제3공수여단 특수탄 사용 기록

“보안사 사진첩 공개로 크로스체크 완료”



5·18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가 수집한 사진 1769장이 39년 만에 공개되면서 5·18 당시 설팅 수류탄(특수탄)이 사용됐다는 사실이 최초로 입증됐다.

그동안 5·18 당시 설팅 수류탄, 즉 특수탄이 사용됐다는 기록과 증언은 있었지만 공식 군 기록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

음이다.

1일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교수는 “1980년 5월27일 계엄군의 도청 탈환 작전에 투입된 제3공수여단에 특수탄이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고 이번 보안사 사진첩 공개로 크로스체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김희송 교수에 따르면 자신이

연구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계엄사령부 문서철 중 도청탈환 작전에 투입된 제3공수여단에 설팅 수류탄, 이른바 특수탄이 사용됐다는 기록과 민간에 공개되지 않은 사진이 존재했다.

이 문건 외에도 그동안 다수의 시민군이 설팅수류탄을 목격했고 5·18 당시 도청탈환 작전 등 일부 작전에서 특수탄이 사용됐다는 증언을 이어왔다.

하지만 김 교수가 소유한 계엄사령부 문건의 출처와 공신력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기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번 보안사 사진첩에 포함된 사진 4장이 계엄사 문건에 포함된 사진과 정확히 일치하면서 문건과 특수탄 사용 기록의 공신력을 입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 교수는 자신이 연구하던 계엄사 문건 중 여학생들이 무릎 꿇고 총을 두 손으로 들고 벌을 서는 자세를 하고 있는 사진 등 총 4장의 사진이 보안사 사진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계엄사령부 문건과 보안사 사진첩이 서로 크로스체크 역할을 하면서 계엄사령부

문서철의 공신력을 입증, 5·18 진상규명에 매우 유의미한 증거가 도출됐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고 특수탄 사용을 부인하는 군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기록이었지만 출처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 사진이 보안사 사진첩에 실릴 정도면 이 역시 군 기록이 맞다는 확신을 하게 됐고 특수탄 사용을 부인한 군의 입장을 반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일치하는 네 장의 사진말고도 계엄사 문건에 한 장의 사진이 더 있다. 하지만 나머지 한 장은 보안사 사진첩에서 찾을 수 없었다”며 “이는 보안사가 5·18 당시 일부 사진과 기록을 은폐하거나 축소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보안사 사진첩 공개와 관련해 “5·18 40주년을 앞두고 5월의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강력한 증거들이 될 것”이라며 최근 공개된 사진 분석에 기대감을 보였다.

신봉우 기자



광주 광산구 장자울 마을 ‘공동체 우수사례’ 대상

한울타리 돌봄 호평

광주 광산구 장자울 마을이 '2019 행정안전부 공동체 우수사례 발표한마당'에서 대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행사는 지역의 공동체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행안부가 주최했고, 광주 산구 장자울 마을은 전국 시·도별 대표 17개 공동체 우수사례 발표 심사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장자울 마을은 '한울타리 돌봄'이라는 마을 안에서 돌봄을 실현하는 사례를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이 마을은 한울타리 방과후 돌봄 등 마을 아이들 돌봄부터 간장·고추장 만들기, 김장하기 등

어르신과 함께하는 돌봄, 마을 텃밭파기 등 주민들과 함께하는 돌봄 등 세대를 뛰어넘는 돌봄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는 2012년부터 광산구 '행운' '만들기 프로젝트' 등 2개 마을을 시작으로 장자울 마을과 같은 여성친화마을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2013년 3개 마을, 2015년 11개 마을, 2016년 15개 마을까지 확대했다.

올해는 돌봄, 여성역량강화, 성평등 마을 3개 분야 19개 마을을 선정하고 이중 14개 마을을 씨앗 단계로, 5개 마을은 특화단계 등으로 구분해 여성가족친화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제17회 보성차밭빛축제

2019. 11. 29.(금)~2020. 1. 5.(일)

한국차문화공원일원

2020 보성울포해변불꽃축제

2019. 12. 31. ~ 2020. 1. 1.